

광주은행, 전자서명 시스템 전면 시행



광주은행은 고객이 작성하는 각종 신청서를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PPR(Paperless Process Reengineering)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고객이 작성하는 각종 신청서를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PPR(Paperless Process Reengineering)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고객 작성 신청서, 종이→전자문서로 대체

오는 4월 2일 지방은행 최초 전 영업점 창구

20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인지소프트와 함께 시스템 도입을 준비해 12월에 시범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날부터 16개 지점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해 4월 2일에는 지방은행 최초로 전 영업점 창구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PPR시스템은 디지털 모니터와 전자펜, 전자서식 등 디지털 요소를 접목해 종이가 필요 없는 친환경 디지털창구시스템으로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는 디지털금융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다.

고객들은 모바일을 통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고 중복으로 작성해 야하는 항목과 서명을 한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은행 직원들은 종이 문서로 일일이 출력하면서 생기는 번거로움과 업무정리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광주은행 장수연 디지털본부 행장은 “올해는 오픈뱅킹플랫폼(OBP)과 모바일을 통한 은행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 영업 솔루션(Branch Digital Transformation) 등 금융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중기부 광주·전남청, 지역 소상공인 어려움 해결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20일, 이경재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및 4개 지역회장과 함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년도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안내하고 이들로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광주·전남지방중기청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소상공인정책 자금 등 올해 달리지는 지원시책도

정책자금 지원기준 개편해 은행과 적극 대응

소개하였다.

정책자금 지원기준을 개편하여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우대, 1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신설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자금수요

를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과 함께 적극 대응키로 했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보다 낮은 2.95~3.30%로 제공하고 보증비율은 확대(85→100%)하는 등 대출요건 완화했다.

참석한 지역 회장들은 한목소리로 “광주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을 더 많이 지원해달라”고 부

탁하였고, 이경재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연합회가 발족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결속력이 약하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형 광주·전남청장은,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기아차 '더 K9' 티저 이미지 최초 공개

6년만에 2세대 선보여…기존 모델比 한층 커진 차체



기아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 'K9'이 오는 4월 완벽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온다.

기아차는 20일 신형 '더 K9'의 티저 이미지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기존 모델에 비해 한층 커진 차체, 품격을 더한 디자인, 특별한 감

성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대형 럭셔리 세단이다.

'더 K9'은 한층 웅장해진 차체를 바탕으로 풍부한 볼륨감과 입체감을 구현, 품격있고 당당한 인상을 완성했다.

'더 K9'은 운전자에게 주행 불안

요인을 사전 고지하는 등 첨단 지능형 안전 기술이 대거 탑재된 최고급 '오너 드리븐' 세단으로 개발됐다.

2012년 첫 출시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2세대 더 K9은 기아차의 대표 모델임과 동시에 브랜드 해리티지를 이어가는 상징적 모델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1세대 K9의 차명과 엠블럼을 계승한다.

더 K9 출시를 통해 기아차 승용차 라인업인 K시리즈는 2세대 신규 모델로 새로운 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더 K9은 한층 진일보한 기아차의 플래그십 모델로서 대형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며 “고객들이 추구하는 프리미엄한 가치의 진수가 담긴 럭셔리 세단 더 K9은 유니크한 명품 대형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제네바모터쇼에

렉스턴스포츠 유럽 론칭

쌍용자동차가 2018 제네바모터쇼를 통해 렉스턴 스포츠를 유럽시장에 론칭한다.

20일 쌍용차에 따르면 다음달 6일(현지시각) 개막하는 2018 제네바모터쇼에 콘셉트카 e-SIV(Smart Interface Vehicle)와 신차 렉스턴 스포츠 등 7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유럽시장에 첫 선을 보이는 렉스턴 스포츠는 강인한 이미지를 극대화한 외관 디자인을 적용했다.

G4 렉스턴과 공유하는 실내 디자인과 넉넉한 공간, 4Tronic과 차동기어잠금장치(LD)를 바탕으로 뛰어난 경인력과 전천후 주행성능을 갖췄다.

오리온은 해외 제과업계 전문지가 선정하는 2018 제과업계 글로벌 톱 100에서 14위에 올라 6년 연속 15위권에 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제과업계 글로벌 톱 100은 글로벌 제과산업 전문지인 '캔디인더스트리(Candy Industry)'가 매년 전 세계 제과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선정·발표하는 자료다.

오리온은 지난해 중국 사드 이슈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베트남 등에서 선전하면서 14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오리온은 2013년 13위를 차지한 이후 6년간 국내 제과기업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오리온 한국법인은 제과업계 최고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꼬북



칩' 등 스낵류가 전체 성장을 견인하면서 5년 만의 매출 반등에 성공했다. 베트남법인도 '초코파이'가 18%, 스낵류인 '투니스'와 '오스타'가 각각 39%, 38%의 매출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현지화 기준 13.8%의 고성장세를 이어갔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다?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